한동대학교 제6대 대학평의원회
2016학년도 2학기 제6차 정기회의

(제6회 회의록)

구 분	평의원
의원정수	11명
재적인원	11명
참석인원	10명

회의 일시 : 2017. 2. 23(월) 12:00 ~

회의 장소 : 현동홀 소회의실

성원

1. 참석자 (10명)

   배건웅 의장, 한윤식 부의장, 강사웅 평의원, 권상석 평의원, 황혜리 평의원, 장규열 평의원, 최유강 평의원, 최규학 평의원, 주병창 평의원, 김기찬 평의원

2. 불참자 (1명)

   유승대 평의원

3. 안건 관련 참석자

4. 회의록 작성 : 차효성 과장(전략기획팀)

회의 안건

○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 후보 추천 관련

○ 기타

의결 및 토의

○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 후보를 추천할 개방이사(감사)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배건웅 의장, 한윤식 부의장, 최유강 평의원 3명이 선출되었다.

○ 기타 논의 내용

가. 총장중임관련

- 총장 중임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최유강 동문평의원이 학교 행정 시스템과 동문회와의 관계 등 여러 관점에서 우려와 발전적인 모습을 위해 변화가 필요함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 교내에서 생활하는 행정부서조차도 법인으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못했음을 설명하고 당시 법인팀 최선미 선생이 이사장님 명의로 보낸 교내 구성원 안내 이메일로 중임결과를 통보한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표하였다. 그간 공동체의 요청과 노력을 고려할 때 공동체가 객관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중임 경과에 대한 내

용이 없고 결과 통보형태인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총장인선절차 제정을 위한 TFT 등 이사회에 지금까지 공식적인 문서로 정중하게 요청한 과정과 비교할 때 공동체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다.

- 법인 이사회에서 총장중임에 대한 회의가 있었으면 논의과정, 의견, 의견수렴과정이 정리가 되어 공동체에 배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이 메일 하나로 중임을 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법인 정팔교 팀장이 총장중임에 대한 공동체의 의견을 이사회에서 논의한 것과 투표로 중임 결정이 진행된 것 그리고 총장 중임에 대하여 장시간 논의를 한 사실이 이사회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음을 설명함 - 유선상 설명

- 지난 법인 이사와의 간담회에서 개정된 정관에 관한 학내 의견이 분분하여 이사회에서 재논의 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기억하며 법인이 공동체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받았으면 법인도 공문으로 예의를 갖춰서 시스템적으로 보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회의 종료 후 법인 정팔교 팀장에게 유선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총장중임에 대한 경과를 대학 공동체에 안내가 필요하다'는 평의원회의 요청을 전달함.

- 중임에 대한 결정에 있어 포괄적인 의미에서 총장에 대한 의견분석에 대한 내용을 담아 법인이 공동체에 보낼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공유하였다. 그렇지 않고 정책결정이 계속 되면 구성원들이 실망을 할 수 있으며, 총장이 공동체의 의견에 동의했는지 여부와 정책 결정에 어떤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지 등에 대해서 법인에서 정리해서 교내 공동체와 동문회에 직접 알릴 필요가 있다.

나. 총장 및 동문과의 소통

- 총장님을 평의원회에 모시는 것을 제안하였다. 한 학기 한번정도 총장님을 모시고 식사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면 건설적인 피드백이나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루트가 마련 될 것으로 보인다.
- 현재 기독교 대학으로써의 정체성이 희석되어가고 있고 동문의 중요성을 대학에서 강조하고는 있지만 동문과 소통이 미약한 게 현실이다. 동문이 잠재적인 후원자라고 봤을 때 동문들을 전략적으로 봐라봐야 한다.

다. 총장인선에 관련된 정관개정에 대한 사항

- 총장인선절차 제정을 위한 TFT가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TFT가 권한이 크게 없기 때문에 이사회와 사전에 조율이 된 새로운 TFT의 구성이 필요하다.
- 이사회에서 이미 TFT에서 제안한 총장인선규정(안)을 reject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사회와 충분히 조율을 한 이후에 TFT 구성이 필요하다.
- 우리가 원하는 것이 100% 반영되진 않았지만 총장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루트가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다. 총장인선에 대하여 발전이 있었다는 전제하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교한 분석과 논의와 협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정관개정에 공동체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정치적인 발언으로 들릴 수 있다.
- 발전적인공조를 만들 수 있는 정교한 내용으로 향후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총장님께도 도와드릴 부분과 조언을 해드릴 부분 등 매우 중립적인 입장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이사회로부터 우리의 요청이 안 받아들여 진 것에 대하여 비난 성 대응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개정된 정관이 너무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면에서 매끄럽지 못하다.
- 배건웅 의장이 안경모 교수 그리고 총장님과 면담을 통해 총장인선에 대하여 방향을 잡기로 함

의장	배건웅	부의장	한윤식	평의원	장규열	평의원	황혜리	평의원	강사웅	평의원	최규학
평의원	주병창	평의원	김기찬	평의원	최유강	평의원	권상석	평의원	유승대 <불참>		